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현장에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 김육봉(=호남) 기자 | ☎ 승인 2025.04.02 13:38



[사진 제공=한국농어촌공사]

[폴리뉴스 김육봉(=호남)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가 최근 '2025년 3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회의실이 아닌 금호호~군내호지구 상황실 및 공사현장에서 진행해 보다 현실적인 안전 점검과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관리자 및 공사감독과 각 지구 현장대리인들이 참석했으며 ▲ 안전사고 사례 전파 ▲ 현장 안전 관리 실태 점검 ▲ 재해 예방 대책 논의 ▲ 현장비치서류 점검 등의 안건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회의를 진행한 만큼, 공사 시공 과정에서의 실제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보다 현실적인 안전 대책을 강구하는 기회가 됐으며 참석한 현장대리인들은 경험을 발판삼아 앞으로도 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해 무재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최진 지사장은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이 협력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미연에 안전 사고를 방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공정에 차질 없도록 미리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육봉(=호남) 기자 news1@polinews.co.kr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